

## 정보교류 협의회 인도네시아 출장보고서

2011. 5. 7 ~ 5. 11

### I. 출장 개요

- 출장일정
  - 2011년 5월 7일(토) ~ 5월 11일(수), 출·입국일 포함
- 출장지 및 출장자
  - 출장지: 인도네시아 자카르타
  - 출장자: 조 병구 경영지원본부장
- 활동사항
  - 인도네시아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관계자들과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 확대 방안 토의
  -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한-인니 경제협력 관계 현황 청취
  - 포스코 진출로 바라 본 인도네시아 투자 리스크 토론
  -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및 진출 방안 토론
- 주요 면담자
  - 인도네시아 CSIS 연구진
  - 인도네시아 KOTRA 임원 및 현지 진출 기업 지사장 등

\* 면담자는 세부일정 참고

## II. 세부일정 및 참석자 명단

### □ 세부일정

일자	시간	세부일정
5월7일 (토)	19:05-01:05	인천-인도네시아 발리(KE627)
5월8일 (일)	오후	세미나1
5월9일 (월)	11:00-11:45	자카르타
	오후	CSIS: www.csis.or.id 방문
	저녁	세미나2 겸 기업간담회
5월10일 (화)	오전	투자기업 방문 (경승무역)
	오후	산업시찰
	22:05	자카르타공항출발 (KE628)
5월11일(수)	7:05	인천국제공항도착

### □ 참석자 명단

#### ○ 인도네시아 CSIS

- Raymond Atje, Head, Department of Economics
- Maria Monica Wihadja, Department of Economics
- Widdi Mugijayani, Department of Economics
- Medelina K. Hendytio, Head,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
- Lina Alexandra,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

#### Relations

- 인도네시아 현지 인사
  - 김재한 KOTRA 자카르타 지사 관장
  - 김관목 KOTRA 자카르타 지사 부관장
  - 원장희 포스코 인도네시아 지사장
  - 박찬성 현대건설 자카르타 지사장
  - 안창범 삼정 KPMG 회계사
- 정보교류협의회
  - 김홍중 KIEP
  - 최윤기 KIET
  - 전병목 조세연구원
  -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
  - 정기혜 KIHASA
  - 유재윤 국토연구원
  - 안두현 STEPI
  - 김창도 POSRI
  - 한선희 KOTRA
  - 박근형 KOTRA
  - 조병구 KDI

### III. 주제 및 발표

#### ①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과 한-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관계: KOTRA 자카르타 KBC 김관목 부관장

##### □ 인도네시아 투자환경

- 인도네시아는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추세로 긍정적인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
  - 임금 경쟁력을 부유한 노동시장
- 그러나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각종 시설이 열악하다는 부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음
  - 내국인 친화적인 노동 법규 및 인건비 상승으로 투자에 불리한 환경
  - 부정부패와 관료주의, 세무 및 관세 행정의 불투명성도 장애 요인
  - 전체 183개 투자대상국 중 122위(2009년 9월 발표 IFC 리포트)

##### □ 한국-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의 꾸준한 증가세
  -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가
  -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5대 교역국가: 2010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규모는 328백만 달러를 기록
- 한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현재생산, 해외수출이 초기의 투자형태였으나, 현재는 내수시장 공략을 시작했으며, 현지화가 강화되는 추세
  - 현재 1,300여개의 한국기업이 약 50만명 이상 고용 창출
  - 인니 해외수출 중 약 100억불(9%) 기여

#### ② 포스코 진출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리스크 :삼정 KPMF 안창범 회계사

##### □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기업 및 기업 형태

- 기존에는 노동집약적 봉제 및 의류업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포스코, 한국타이어 롯데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신규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진출기업의 유형 변화
  -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구조는 크게 Joint Venture(포스코, SK 에너지, SK 텔레콤 등)와 100% 신규설립(롯데, 하나은행, CJ, 삼성전자, LG전자 등)의 2가지 형태

##### □ 기업환경의 리스크 요인

- 일반적으로는 정부규제, 투자 incentive, 사업부지 및 인프라 등에 리스크 요인
  - 정부규제에 negative list가 존재함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
  -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지 확정 어려움
  - 전기, 교통, 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가 열악함 간접비용 지출 증가
- 회계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2015년까지 IFRS를 도입할 예정
  -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공시할 의무 없음
- 세무조사 부문도 인도네시아 기업 환경 부분의 Risk 중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이며, 현금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

③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및 진출 방안  
: 현대건설 박찬성 지사장

4) 단순도급 공사에서 투자를 동반한 개발공사 위주로  
- BOUYGUES, VINCI 사 벤치 마크 필요

□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계획

1) 장기개발계획(2010-2025)

	GDP	1인당 GDP	경제규모
2010	US\$ 700 bil	US\$ 3,000	세계 17위
2025	US\$ 4.3 tril	US\$14,900	세계 12위

2) 중기개발계획(2010-2014): 7% 경제성장 달성

3) 인프라 개발 계획: 2010 - 2014년간 1,500억불 투입계획

- 정부재원: 38%인 560억불

- ppp pROGRAM: 62%인 940억불

4) 투자환경:

- 국가경쟁력 44위: 인도, 브라질, 러시아보다 높음

- 외국인 투자선호도 9위

□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전략

1) 선택과 집중

- 적정 규모와 수익모델이 검증된 공사 위주 참여

- 홍보 목적으로 ppp 사업선정 및 수익모델 불확실한 경우  
추진 지연

2) 투자(개발) 전문회사 육성

- 전문 투자업체 부족: 일본상사 벤치 마크 필요

- IPP 업체 육성, 종합상사들의 투자전문회사 전환 필요

3) 금융 지원 시스템 개선

- 정책금융 확대

- 국내 상업은행의 외국 인프라 공사에 대한 PF 활성화